

여수·순천·광양

여수 굴 양식 피해 국가 보상 확정

지난해 바다 수온 상승으로 양식 굴이 대규모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던 여수지역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226 양식어가가 입은 피해액 41억원의 절반인 20억5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30%는 용자로 자금을 지원하며 136여가에 대해서는 영여 자금을 대한 이자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해수부, 폐사액 41억원 산정 내달부터 보상키로

어민들 "실제 보상까지 시일 길어 단축해 줬으면"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보상금 산정 등 피해 보상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어민들은 정부의 이같은 피해 보상 지원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어민들은 굴이 폐사한

지 10개월이 다 돼서야 보상 규모가 확정된데다 실제 보상이 이뤄지는데도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때문에 어민들은 보상금 산정과 용자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가막만과 장수만, 돌산 굴전 일대 689ha의 굴 양식장에서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전체 양식 굴의 67%가 폐사했다.

남해수산업구소는 집단 폐사에 대한 원인 분석결과 지속적인 고수온으로 인한 먹이 생물 감소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내년 창원 램사 총회의 공식 방문지로 지정된 순천만이 가족단위 나들이객들로 붐비고 있다. 세계 5대 습지로 평가되는 순천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서식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갯벌·갈대밭·흑두루미...순천만이 뜬다

내년 10월 '람사 총회' 공식 방문지 확정

내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램사(RAMSAR)총회를 앞두고 순천만이 새롭게 각광 받고 있다.

순천만은 경남 창녕 우포늪과 창원 주남저수지와 함께 램사총회가 열리는 내년 10월 총회 공식 방문지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램사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창원시 공무원과 환경단체 관계자, 생태·조류학자 등이 올초부터 매달 200여 명씩 순천만을 방문해 습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램사총회 때는 한국을 방문하는 150여개국 관계자 2천여명이 순천만을 들를 예정이어서 순천만이 국내외적인 집중 조명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00만여평 규모의 순천만에는 77만여평의 갈대밭이 펼쳐져 있고, 200여종의 조류와 120여종의 염생(鹽生)식물, 멸종위기 조류 12종이 서식하고 있다.

람사총회는 1971년 이란 램사르에서 채택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람사르협약)에 따라 3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 행사가 10번째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특히 순천만은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가 겨울철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곳이다.

또한 순천만은 인공적으로 칠새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본 이즈미시 습지와 달리 이삭과 벌레 등 자연 먹이가 널려 있고, 갯벌과 갈대가 조성돼 있어 천혜의 습지로 평가 받고 있다.

람사총회는 1971년 이란 램사르에서 채택된 습지 보호에 관한 협약(람사르협약)에 따라 3년에 한번씩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 행사가 10번째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최상의 복지후생 시설로 재탄생

광양제철 백운프라자 보수 완료

포스코 광양제철소 백운프라자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개·보수 사업을 마치고 지난 1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사진>



지난 1986년 지상 9층 7천653㎡ 규모로 건립된 백운프라자는 객실과 식당을 갖춘 광양제철소 복지후생시설로 직원들은 물론 내방객들이 이용해왔다.

광양제철소는 이번에 52억원을 들여 기존 객실을 확장하고 식당, 로비 등 노후된 부대시설을 새 단장했으며 식당 메뉴도 개선했다.

백운프라자는 오는 8월 광양에서 열리는 '세계최초소추권대회' 기간 동안 해외 선수단 및 내방객 숙소로 이용될 예정이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여수 동양교통 파업계획 철회

노사 임금협상 극적 타결

여수 시내버스 업체인 ㈜동양교통 노조가 당초 14일부터 돌입키로 한 파업 계획을 철회, 노사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여수시에 따르면 동양교통 노조는 당초 사측과의 임금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4일 새벽 4시부터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키로 했으나, 여수시

의 중재로 버스 운행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파업이 2012년 여수 엑스포 개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의 지적에 따라 노조가 자발적으로 파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노조발전기금으로 2천여만원을 노조측에 기부하기로 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Lists various regions and their corresponding phone numbers.

아이들 위한 '그림책 버스' 운영된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 8월부터

순천 '기적의 도서관'에서 농·어촌 어린이들을 위해 그림책 버스를 운영한다.

그림책 버스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해 책장과 빔 프로젝터, 스크린 등 영상장비를 갖추고 편안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바닥을 온돌로 꾸민다.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6월 중 버스 내부구조 변경에 착수해 오는 8

월부터 그림책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그림책 작가들을 초청해 아이들과 함께 버스 외관에 동화 속 캐릭터를 그릴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그림책 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도서관 문화와 문화예술프로그램까지 접할 수 있는 움직임은 '기적의 도서관'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광양 '유당공원' 460년만에 새 단장

83억 들여 산책로·게이트볼장 등 조성 시민 쉼터로

조선 명종 2년(1547년)에 조성된 광양 유당공원이 460년 만에 각종 편의시설과 체육시설을 갖춘 유당근린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돼 이달 말 문을 연다.

시는 사업비 83억 원을 투자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연못과 운동장을 제외한 공원 약쪽 3천921평에 게이트볼장 2면과 광장, 육각정자, 산책로, 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했다.

시는 사업비 83억 원을 투자해 특히 연못 동쪽 편에 새롭게 조

성된 소나무 산책길에는 아름드리 소나무 60여 그루와 10그루의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으며 서쪽 편에는 게이트볼장과 육각정자가 자리해 노인들의 휴식처로도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또 도심속에 위치한 공원으로는 드물게 인공 연못이 조성돼 있고 매년 5월이면 이팝나무와 400~500년생 거목들로 둘러싸여 있어 광양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광양=김준호기자 chkim@

Large advertisement for 'Jjang' (장) featuring '자격증 합격을 보장받고 공부하는 새로운 방법' and '자격증 포털 아카데미'. Includes contact info and a list of cours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CE타워(주)' (LCE Tower Co.)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일가공인중개사' (Ilga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한일지도판매(주)' (Hanil Jido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호성공인중개사' (Hoseong Gongin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지부동산' (Daegi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홈컨부동산 리서치' (Homecon Real Estate Research) listing services and contact info.